

News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금년 추가사업은 2월, 2011사업은 3월중 시·군청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2~3월중에 2010년 추가사업과 2011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GAP인증 농산물은 재배단계부터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가 유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농산물로서, 수확 후 판매단계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선별·포장되며 생산 이력도 기록·관리된다. 농산물을 수확 후 처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은 현재 450여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4개 시·군 16개소에 대해 GAP시설 보완 사업대상자를 이미 선정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이란 :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중에 금년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작목반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시설 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내년(2011)도 사업신청은 금년 3월중에는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신청은 관할 시·도에서 접수한다.

• 생산자단체 : 국비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사이버 농업기술교육 인기상승 전년대비 1.7배 늘고, 일반인 53%, 농업인 34% 차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에서 올해 운영하는 제1기 사이버농업기술교육을 지난해 신청자 1,652명의 1.7배인 2,826명이 신청해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정규과정 총 8개 수강과목 중 친환경유기농업 신청자가 27.6%로 가장 많았고, 블루베리(15.8%), 원예 프로그램 지도자, 기초영농기술, 농산물가공, 약용작물, 산채, 고추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또한, 교육신청자들의 53%(1,492명)가 도시민을 포함한 일반인이었으며, 농업인(34%, 953명), 공무원(12%, 336명), 대학생(1.5%, 41명) 등 그 수요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기 사이버농업기술교육은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이번 학기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4월에 수강신청을 받아 6~7월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 2기 교육을 노려볼만하다.

농촌진흥청 기술연수와 문헌집 지도관은 “사이버교육 요구가 계속 늘어 올해도 2과목을 새로 개설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집합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교육(블렌디드 러닝)과정도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약청, A형간염예방백신 신속공급·비상 체계 가동

국가검정인력 집중투입 및 국검기간 대폭 단축 (46일→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국내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A형간염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검정업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현행 46일 걸리는 국가검정기간을 16일 단축하여 30일 이내에 신속 처리하는 등 A형간염백신의 신속·적기 공급을 위한 비상체계를 가동한다.

국가검정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이다.

A형간염은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지는 않지만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와 수건·식기 등을 함께 사용할 경우 옮기는 전염병으로, 발병할 경우 간의 이상반응으로 황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한 달 이상 입원이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A형간염 환자 수는 2007년 2,233명이었으나, 2008년 7,895명, 2009년 14,94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물은 끓여서 마시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 질환자나 해외 장기체류자 등 A형 간염이 크게 우려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앞장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한 저소득계층 성금 모금과 8개 산하기관에서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50회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역본부 전 임·직원들은 저소득 소외계층 성금 총 8백여만원을 모금하여 기부하였으며, 산하기관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섰다. 산하기관별 봉사활동은 각 지역에 있는 춘천시립양로원, 희망원, 호성보육원, 작은자매의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환경정화, 목욕봉사, 노인·신체장애인과 함께하기 등이었다. 특히, 강원도본부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자체행사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춘천연탄은행에 보내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충북·전북도본부는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농사일 돕기, 주변 환경정리, 목욕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배상호 본부장은 “금년에도 저소득 소외계층 성금모금과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협 중앙회



농협계란 첫 해외 수출

농협계란이 첫 해외 수출길에 오른다.

농협은 첫 계란 수출을 위해 2월 2일 한국양계농협 영천집하장에서 홍콩으로 보낼 계란 4만개(200박스)를 선적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계란은 항생제 검사 및 신선도 검사를 통과한 고품질 계란으로만 엄선했다. 농협은 수출을 위해 작년 12월 홍콩 식약청의 검사를 통과하여 수출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수출계란은 홍콩의 유명 매장인 'JUSCO' 마트와, 'UNY' 백화점에서 우선 판매되며 향후 다른 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은 계란의 동남아 수출을 위해 2008년부터 계란 수출에 공을 들여왔다. 홍콩의 대형유통센터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계농가와 계란 집하장을 견학시키는 등 한국 계란의 안전성을 집중 홍보해 왔다. 농협은 올해 홍콩에 계란 700만개를 수출해 1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 이외에 대만 등 다른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 국내 계란 수출현황

2009년 이전에는 수출이 없었으며, 2009년부터 일부 민간 기업에서 대만, 홍콩 등에 소량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비전선포식 가져

HACCP 정착과 발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 밝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은 2월 9일(화)에 기준원 3층 대강당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회장, 농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이문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션·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석희진원장은 기준원의 제2기 도약을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완전한 위생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축산물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미션과 비전으로 선포하고, 기준원 발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축산물HACCP 정착과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기관의 HACCP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HACCP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둘째, 단계별 HACCP 지정을 확대하고 심사관 업무를 표준화·전문화함과 동시에 HACCP 홍보를 확대하여 Farm to Table의 HACCP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셋째, 지정업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HACCP 심사기준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정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넷째,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고객중심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부서인 고객지원팀을 신설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금번 제2기 석희진원장 취임 100일에 즈음한 미션·비전 선포식은 기준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2

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행사로,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식품 대규모 수출 위해 시스템 개편

aT “직접수출 가능한 종합상사형 체계 구축”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기존의 수출 지원 역할과 병행해 직접수출이 가능한 ‘종합상사형 수출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aT는 2월초 사업추진팀을 구성하고, 현재 해외대형유통망에 대한 대량수출 등 민간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aT는 또한 수출물류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오는 7월까지 aT와 각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류비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aT는 업체별 수출실적, 신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운영활성화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aT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제곡물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 26% 수준으로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상이변, 투기세력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민간 주도의 해외 곡물 개발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다.

aT 관계자는 “이달 초 국제곡물사업추진팀을 구성했으며, 향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곡물사업 투자 분석, 진출대상국 선정 등 국제곡물사업 참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설명회 성황리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10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시공사 및 휴게소운영업체 등 60개 업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설명회는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관련 사업현황 및 공모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추후 추진일정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 대상면적은 약5.6ha 임야지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지구 전반의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랜드마크형 전망휴게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여 휴게·편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을 앞두고 휴게시설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성이 우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는 신시석산 개발 잔여부지의 일부를 장기간 임대해 민간사업자가 수익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 기부 채납하는 BO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모의 신청 자격은 「새만금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투자자 자격을 갖춘 자로, 개별법인 또는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정된다. 공사는 본 공모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2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에 걸쳐 받으며, 3월 29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여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